2025 MET 해외선교 간증문 – 대학지구 라오스팀

대학지구 수지 2캠퍼스 채운날 목장

황지민 목자

이번 해외선교는 이웃사랑을 묵상한 해외선교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하는지,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잘 살고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라오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과 묵상했던 말씀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 속 이웃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실천하기에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해외선교 기간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나누고 느낀 것들을 통해 그 의미를 납득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있는 베들레헴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매가 너무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우울했다가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게 된 이야기, 시골마을에서 외롭게 살다가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으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 등 간증을 들을 당시에는 특별한 울림이 없었다가, 휘이생 교회 사역을 위해 라오스의 정말 시골마을로 갔다 나오는 길에 베들레헴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휘이생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았는데 남매가 너무 많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친구의 간증이 떠오르면서 지금 베들레헴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지 어렴풋이 예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다 알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해 지금의 모습처럼 회복되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같은 룸메이트였던 팀장언니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언니가 원래의 너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마음, 말씀들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분별해보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떠올라 이 말씀과 지금 나의 삶, 주변을 찬찬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면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회복할 여지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런 건가보다, 그럼 나는 사랑받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니,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받은 존재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먼저 사랑받은 너가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줄 수 없겠니’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먼저 사랑받은 나를 세우시고,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웃사랑의 의미가 납득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만 가득했었는데, 앞으로는 ‘ 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 나눠줄 사람 바로 you!’ 라고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해외 선교는 이웃사랑을 왜 실천해야하는지 불만이었던 저에게,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